

150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17) 섬세한 소재의 소핑 불량

□ 섬세한 소재의 소핑 불량

해설)

- 제품 전체를 보면 상의에 심한 색 차이를 볼 수 있지만, 디지털 처리로 드라이클리닝하지 않은 스커트도 맞추어 보면, 스커트에도 미묘한 색 차이를 볼 수 있음.
- 형광 오염이나 아미노산 변색 등의 확인을 위해서 블랙 라이트 관찰을 시도했지만, 별다른 차이는 없었음. 염색 상태에 대해서 N-메틸-2-피롤리돈, 퍼클로로에틸렌, 정제수, 중성세제 용액에 의한 시험을 한 결과, 중성세제에 의해서 염료가 다량 용출되었음.



<위의 사진은 화상데이터를 디지털 처리하여 얼룩 상태를 강조한 것임.>

- 따라서 이 제품은 견 소재이기 때문에 산성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, 염색 후속공정으로 소핑(중성세제로 미고착의 염료를 수세하는 공정)처리 및 고착처리(염료의 고착)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중성세제를 넣은 물에 담그면 수용액이 물들 정도로 염료가 용출되었음.
- 한편, 이 제품은 세탁취급 표시대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는데도 얼룩이 발생한 이유는 드라이클리닝용 세제에 포함된 수분에 의해 미고착 염료가 다량 용출되면서 얼룩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